

교회소식 |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

정오중보기도 -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.

1. 환영

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
2. 릴루엣 원주민 선교

내일 월요일(8/5)부터 수요일(8/7)일까지 진행되는 릴루엣 원주민 단기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.

3. 8월 예배안내

- 새벽기도회 : 8월 6일(화) - 8월 17일(토)까지 쉽니다.
- 수요기도회 : 8월 7일(수), 14일(수), 21일(수) 3주 동안 쉽니다.

▶ 교우소식

- 다과 : 최자은집사 가정, 도유경집사 가정 / 다음 주 : 한주연집사 가정
- 이사 : 윤은경집사 가정 (3146 Sechelt Dr Coquitlam)
- 출타(한국방문) : 김도희집사 가정 / 김경이집사 가정 / 도유경집사 가정

▶ 8월 목회일정

- 8/4(주일) 릴루엣 원주민 선교팀 파송예배
- 8/25(주일) 성찬예배
- 8/26(월)-28(수) 새 학년 삼일 저녁기도회

▶ 2019년 여름 사역일정

- 8/5(월)-7(수) 릴루엣 원주민 단기선교
- 8/23(금)-25(주일) Youth 다니엘목장 연합수련회 / 나나미모

■ 예배위원안내

날 짜	1부 기도	2부	헌금위원	안 내
8월 04일	송지은	장혜성	재정부	8월 박미란
8월 11일	최슬비	천길영	장혜성	

■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.

교회를 위해	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공동체가 되게 하소서.
성도를 위해	최자은집사(손준웅) 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지키소서

섬기는 사람들

담임목사 정 병 완
부목사(유스) 김 상 훈
전도사(키즈) 장 호 선
전도사(찬양) 박 청 아

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

캐나다 릴루엣 원주민(이준호 선교사)
북 한 First Steps(수잔 리치 Susan Ritchie)
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



2019년 신앙주제

내 백성을 위로 하라!

Comfort my people.

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(사 40:1)

주 일 예 배

제 7권 31호

2019. 8. 4

	1부 오전 9시	2부 오후 2시
신앙고백 (Confession)	사도신경	
찬 송 (Praise)	찬송가 292장	경배와 찬양
회중기도 (Prayer)	송지은자매	장혜성집사
교회소식 (Announcement)	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	
특 송 (Special Praise)	릴루엣 원주민 선교팀 (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)	
다음세대 축복기도 (Blessing)	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	
봉 헌 (Offering)	찬송가 292장	
말씀선포 (Sermon)	사도행전 15:36-41(신약 214쪽) ‘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’ 정병완목사	
*파송찬양 (Closing song)	주와 같이 길 가는 것	
*축 도 (Benediction)	정병완목사	

새벽기도회

매일(화-토) 오전 6시
“에스겔 강해”
인도: 담당 교역자

수요기도회

매주 수요일 저녁 8시
“원주민 선교 기도회”
인도: 담당 교역자

교회학교예배

주일 오후 2시
Kids(드림, 비전목장)
Youth(다니엘목장)
인도: 담당 교역자



Tel. 778.871.7740 / www.vanwkc.com

교회 : 1460 LANSLOWNE DR. COQ

שלמחן מלגא : 2288 ELGIN AVE PQ. COR

선한 이웃 선교로 통로가 되는 나무십자가 공동체

사도행전 15:36-41 (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)

-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신자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바리새파 출신 교회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벌입니다.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교회는 할례와 율법준수가 구원의 필수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.
- 할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적어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.
-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안정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형편을 살피고 핏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자고 제안했고 바나바도 좋게 여겨 2차 선교 여행이 준비됩니다.
-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고(37절),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도중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갑자기 고향으로 되돌아 가버린 마가를(행 13:13)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(38절).
-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었고,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서로 갈라져 선교사역을 이어 갑니다.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고(39절),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가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(40-41절). 두 사람의 갈등의 모습에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
- 한편,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다른 목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바울은 "사명"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, 바나바는 "사람"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.
-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두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지만 이후 마가 요한의 변화된 모습으로 볼 때 바나바의 선택이 바람직했다고 평가됩니다.
-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를 격려와 지지와 칭찬으로 양육을 했고 그 결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.
- 사도 바울은 이후 마가가 자신의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(딤후 4:11).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.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"내 아들"(벧전 5:13)이라고 칭찬했습니다.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한 베드로를 대신해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. 베드로 전, 후서를 대필했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. 그 무엇보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.
-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시킨 바나바의 모습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.

♣ 릴루엣 원주민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♣

월요일 - 8월 5일(월)-7일(수)까지 진행되는 릴루엣 원주민 밴드 Kids Camp가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게 하시며, 선교 팀원 모두가 건강하게 하소서.

화요일 - 19명의 원주민 아이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물질과 마음과 재능을 헌신하게 하소서.

수요일 - 19명의 선교 팀과 세분의 선교사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, 건강한 체력과 성령이 충만한 영성이 유지되게 하소서.

목요일 - 로보틱스 프로그램, 레크레이션, 미용 봉사 및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각각의 팀원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.

금요일 - 이번 선교를 통해 릴루엣 밴드와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, 머지않아 성경학교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이어가게 하소서.

토요일 - 릴루엣 원주민 선교를 통해 "내 백성을 위로하라"(이사야 40:1)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며,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소서.

- 매일성경 인용 -